

# 영어와 한국어의 활음에 대한 연구

나 기 연  
(전주교육대학교)

La, Ki-Yun(1994). **A Study on English and Korean Glides**. *Linguistics*, Vol. 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 to suggest that through the universal definition of glides, English glides are divided into onglides and offglides, and their functions and underlying representa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ositions in English syllable structure, (ii) to propose that Korean glides are only onglides, but their underlying and phonetic representation are different in Korean syllable structure, and (iii) to justify the validity of the above second proposal through the discussion of Korean phonological phenomena related to glides. Especially, in the discussion of English and Korean syllable structure, the framework of Levin(1985) is employed for the skeleton tier and the zero feature specification of Hyman(1985) for the underlying representation of glides.

## 1. 서론

**음** 운론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음운 중 하나가 활음인 듯 하다. 이는 언어마다 음절구조 속에서의 활음에 대한 표시를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특히 이중모음의 일부로 취급되어 온 활음에 대한 음성표기도 학자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활음(glides)<sup>1</sup> 이란 [-cons, -voc] 자질을 가진 음으로, 어떤 경우는 자음으로 또 다른 경우는 이중모음의 일부로 취급

되어 오면서 각각 반자음 또는 반모음으로 불리워 왔다. 그러나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음운체계상 활음을 기저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은 그것과 단모음과의 결합에 의하여 이중모음(diphthongs)<sup>2</sup>의 연결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음운체계 속에 이중모음을 별도의 기저음운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들의 연결에서 예견되는 잉여성에 의하여 분절음 배열제약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술할 한국어의 활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을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활음에 대한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여 영어의 활음에 대한 논의에서는 상향적 활음(onglides)과 하향적 활음(offglides)을 구분하여 각각 음절구조 속에서의 그 기능과 표시가 서로 다를음을 보여주고, 2) 한국어의 활음에 대한 논의에서는 음절구조 속에서 활음에 대한 기저표시와 음성표시는 서로 달라야 한다고 제안하고, 3) 한국어의 활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의 논의를 통하여 두번째의 제안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다.

## 2. 활음의 개념정립

우선 먼저 활음 또는 반모음(semivowels)이란 용어가 다른 언어 학자들에게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These frictionless American English sounds are formed as the articulators involved move from one position to another. These sounds are called glides. Each of these glide sounds, /w/, /r/, and /y/, is closely associated with a specific vowel. (Bronstein 1960 : 111)

In general, glides play a very marginal role in underlying representations in English. (Chomsky and Halle 1968 : 135)

Semivowels or glides are the non-syllabic counterparts of vowels. (Sommerstein 1977 : 98)

Glides are sounds produced by gliding the tongue toward or away from a more prominent adjacent vowel. These sounds are sometimes called semivowels. (Sloat, Taylor and Hoard 1978 : 42)

A semivowel is a kind of approximant consisting of a nonsyllabic vowel occurring at the beginning or end of a

syllable. . . . The semivowels in English are [y] and [w], which are like nonsyllabic versions of the English high vowels [i] and [u] respectively. (Ladefoged 1982 : 209)

A semi-vowel is a rapid vocalic glide on to a syllabic sound of greater steady duration. In English the semi-vowels /y/ and /w/ glide from positions of approximately /i/ and /u/ respectively. (Gimson 1989 : 212)

The semivowels or glides [y] and [w] are close kin to the corresponding high vowels [i] and [u]. . . . Intuitively, [y] and [w] are consonantal variants of the vowels [i] and [u]. (Kenstowicz 1994: 23)

이상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활음 또는 반모음이란 그것이 모음의 앞에 오건 뒤에 오건 그 음과 관련된 조음기관들이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할 때 형성되는 음으로 정의된다. 또한 활음은 음운론적으로는 비성절음으로 간주되고, 음성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음을 발음할 때 실현되는 조음상의 신속한 움직임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만약 활음이 모음의 앞에 오면 우리는 그것을 onglides라 부르며 자음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만약 그것이 모음의 뒤에 오면 offglides라 부르며 이중모음의 일부로 취급한다.<sup>3</sup>

전통적으로 반자음으로 처리되어 왔던 onglides인 [y]와 [w]는 각각 고모음 [i]와 [u]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여 전자는 혀가 다른 모음의 조음위치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활음이고, 후자는 다른 모음의 조음위치와 입술모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활음이다. 따라서 고모음 [i], [u]와 각각 그에 상응하는 활음 [y], [w]는 동일한 자질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부류는 음절구조 속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즉, 고모음은 음절의 정점인 음절핵(nucleus)을 차지하고 있어 성절음(syllabic)인 반면에, 활음은 음절의 주변인 음절두음(onset) 또는 음절말음(coda)의 위치에서 나타나므로 비성절음(nonsyllabic)이다.

활음과 고모음의 등가성은 수많은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활음의 단모음화(vocalization) 현상을 Arabic어의 예에서 살펴보자.

30 나기연

- (1) a. dalw-ak, jady-ak  
 b. dalu, jadi

Arabic어에서는 자음군으로 끝나는 단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a)의 어간에서 2인칭단수 접미사 '-ak' 을 제거할 경우, (1b)에서 보듯이 어말의 자음군으로 남게되는 활음은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 각각 그에 상응하는 고모음으로 변한다.

활음과 고모음의 밀접한 관련성은 Basque어의 활음삽입 현상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 /ari+a/ → [ariya],      /iku+a/ → [ikuwa]

Basque어에서는 모음충돌(hiatu) 현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2)에서 보듯이 고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정관사 접미사 '-a' 가 첨가될 경우, 마지막 음절에 onset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간 말의 고모음에 상응하는 활음들이 각각 삽입되어 실현된다. 이와 같은 활음의 출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즉, 이 언어에서는 모음연결(즉, V+V)은 음운론적으로 불안정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음충돌 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한가지 대안은 다음의 (3)처럼 'dummy' 또는 'generic' 한 자음에 의해서 두 모음을 분리시켜 놓는 일이다.

- (3) V+V → VCV

이 언어에서는 이처럼 두 모음 사이에 삽입된 dummy를 앞서는 고모음의 자음적 변이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직관적 감각으로는 다음의 (4)에서 보듯이 앞서는 고모음의 자질들이 dummy의 위치로 확산되어 각각 그에 상응하는 활음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 (4) V C V  
       |  
       [+high]  
       [αback]

반면에 전통적으로 반모음으로 처리되어 왔던 offglides인 [y]와 [w]는 이중모음 (즉, 동일 음절구조 속에서의 [-cons]분절음들의 연결)의 두번째 요소로서 음절핵의 위치에 나타나므로 학자에 따라서는 단음부호를 사용하여 각각 [i̥]와 [ū̥]로 표기하기도 한다. Offglides에 대해서는 나중에 3.1.2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앞의 논의에서 고모음과 활음은 각각 그 성질성의 차이로 구분이 되었다. 생성음운론의 초기단계에서는 어떤 음의 성질성은 [syll]자질에 의해 특징화되었다. 그러나 이 자질은 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음성적 상관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중요한 이론적 발달에서는 운률적 구성요소로서의 음절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보다 더 분명해졌다. 따라서 오늘날의 생성음운론적 입장에서는 어떤 음의 성질성은 그 음의 자질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음절구조 속에서 그 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른 기능이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활음은 음운체계 속의 어떤 다른 음운들과는 달리 조음상 단독으로 독립해서는 발음할 수 없으며, 그 결과 반드시 그것에 앞서거나 뒤따르는 다른 모음으로의 신속한 움직임에 의해서 실현된다. 한편 모음앞에 오는 onglides와 모음뒤에 오는 offglides는 음절구조상의 위치에 따른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즉, onglides는 onset의 위치에 나타나므로 자음(즉, 비성절음)으로 취급되는 반면에, offglides는 nucleus의 위치에 나타나므로 이중모음의 일부로 취급된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학자들의 언급에서는 onglides와 offglides의 명확한 구분없이 양쪽 모두에 대해서 활음 또는 반모음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쓰여 온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활음이라는 용어로 통일시켜 사용하겠다.

### 3. 영어의 활음

#### 3.1. 활음의 종류

Schane(1973:19-20)에 따르면, 활음은 반모음(semivowels, 즉 /y/와 /w/)과 후두전이음(laryngeal glides, 즉 /h/와 /ʔ/)⁴으로 구분된다. 한편 Trager and Smith(1957)는 영어의 활음(반모음)으

## 32 나기연

로서 /y,r,w,h/를 인정하고 모음 앞에 왔건 뒤에 왔건 똑같은 표기를 썼으며, Bronstein(1960)과 Kenyon(1961)과 Prator and Robinett(1985)는 활음으로 /y,r,w/를 인정하고 반모음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Jones(1967)는 /r/을 마찰음으로 보고 활음으로서는 /y,w/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영어의 활음들의 종류와 그 변별적 자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자질/음운	y	w	r
high	+	+	-
back	-	+	-
round	-	+	+

### 3.1.1. Onglides

#### 3.1.1.1. Fronto-palatal glide /y/

##### 1) 조음음성학적 기술

이 음은 전설면을 입안의 경구개쪽으로 올려서 만들어진다. 이 음이 시작되는 조음위치는 고모음 [i]의 조음위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이 음의 조음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즉, [i]앞(yield)에 왔을 때가 [a]앞(yard)에 왔을 때 보다 조금 더 높은 조음위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이 음의 조음시 입술 모양은 뒤따르는 모음의 입술모양을 가정한다. 즉, 전설모음앞(yeast, yes)에서는 평순화되고, 중설모음앞(earn)에서는 약간 이완되면서 벌어지며, 후설모음앞(use, yoke)에서는 원순화된다. 이 음은 모음앞 onset의 위치에서만 존재하고 자음앞이나 어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2) 음성적 변이음(variants)

① 어두(yet, you, union, Europe)와 연성자음뒤(beauty, duty, music; abuse, argue, onion)에서는 [y]로 실현된다.

② /sp, st, sk/뒤(spurious, stew, askew), 경성마찰음뒤(enthusiasm, pursue, refuse), 그리고 강세없는 /p, t, k/뒤(opulent, spatula, oculist)에서는 부분적으로 무성화가 일어나 [ɥ]로 실현된

다.

③ 강세받는 /p,t,k,h/뒤(pew, queue, tune, cure, huge: accuse, attuned)에서는 무성화가 완전하게 일어나 그 결과 무성 경구개마찰음 [ç]로 실현된다. 특히 어두의 '/h/ + /y/'의 연결(hue)도 흔히 [ç]로 실현된다. 강세받는 자음군의 마지막 요소로 /y/가 올 때는 오직 /u/와 /Ur/ (때때로 /ɔ/)만이 그 뒤에 올 수 있다(pew, cure). 강세없는 자음군에서는 /y/뒤에 /u/,/Ur/ 또는 /ɔ/가 올 수 있다(argue, tenure, senior).

### 3.1.1.2. Labial-velar glide /w/

#### 1) 조음음성학적 기술

이 음은 후설면을 입안의 연구개쪽으로 올려서 만들어 진다. 이 때 입술모양은 원순화되고 앞으로 약간 내밀어 진다. 이 음이 시작되는 조음위치는 고모음 [u]의 조음위치와 비슷하다. 이 음의 조음시 나타나는 원순화의 정도와 혀의 높이는 뒤따르는 모음의 성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즉, 원순모음앞(woo, wool)에 올 때가 비원순모음앞(wash, wet)에 올 때 보다 더 큰 원순화의 정도와 혀의 높이가 존재한다. 이 음도 모음앞에서만 존재하고 자음앞이나 어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2) 음성적 변이음

① 어두(weed, wasp, wood, one), 모음사이(away, aware), 그리고 연성자음뒤(always, dwindle, language)에서는 [w]로 실현된다.

② /sk/뒤(square, squash), 강세받는 경성마찰음뒤(thwart, swim), 그리고 강세없는 /p,t,k/뒤(upward, outward, equal)에서는 부분적으로 무성화가 일어나 [w̥]로 실현된다.

③ 강세받는 /t,k/뒤(twig, queen, acquaint)에서는 완전한 무성화가 일어나 그 결과 무성 순-연구개마찰음 [ɱ]로 실현된다. 특히 어두의 '/h/ + /w/'의 연결(wheat, what)도 흔히 [ɱ]로 실현된다. 어두에서의 [w]와 [ɱ]의 대립을 주목하라(with: which, wine: whine).

### 3.1.1.3. Apico-alveolar glide /r/

영국영어를 분석한 Jones(1967)은 /r/을 마찰음으로 해석한 반면에, 미국영어를 분석한 Kenyon(1961)과 Prator and Robinett(1985)는 /r/을 /y,w/와 같은 활음으로 보았다. 실제 발음에 있어서 /r/은 영어자음중에서 가장 유동적인 음으로, 음성학상으로나 음운분석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음이다. 따라서 이 'r'음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가며 그 종류를 알아보자.

가장 초기의 'r'음은 혀끝을 달달 떨면서 치경에 붙었다 뗐다 하면서 내는 전동음-'r'(trilled-r)이다. 이 음은 [r̥]로 표기하는데 오늘날 Scotland 영어에서만 쓰인다. 그후 혀끝을 한번만 치경에 잠깐 뗐다 떴는 단타음-'r'(flapped-r)로 변했다. 이 음은 [r̥] 또는 [r̥]로 표기하며 오늘날 영국영어에서는 강모음과 약모음 사이(very, merry)에서만 쓰이고, 미국영어에서는 /t/의 한 변이음으로 강모음과 약모음 사이(betty, letter)에서만 쓰인다. 그후 다시 혀끝을 치경에 대지 않고 아주 가까이 접근시켜 거기서 생기는 마찰로 이루어지는 마찰음-'r'(fricative-r)로 변했다. 이 음은 [r̥]로 표기하며 오늘날 영국영어에서는 모음앞(red, wrong)에서 주로 많이 쓰이고, 미국영어에서는 /d/뒤(dream)에서만 쓰인다. 이 음은 다시 오늘날 미국영어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활음-'r'(glide-r)로 변하였다. 이 음은 반모음이라고도 불리우며 [r̥]로 표기한다.

#### 1) 조음음성학적 기술

이 음은 혀끝을 입안의 치경 바로 뒷부분을 향해 꼬부려 올리지만 입천장에 직접 닿지 않은 채로 만들어 진다. 이때 혀의 양옆은 어금니에 접촉시키고,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원순화가 이루어지며 입이 약간 앞으로 내밀어 진다. 이 음이 시작되는 조음위치는 중간·중설모음 [ə]의 조음위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음의 조음방법에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즉, 혀끝을 치경을 향해 꼬부려 올려서 조음되는 [r̥]을 반전음-'r'(retroflex-r)이라 하는 반면에, 혀끝을 아랫니뒤에 내려두고 혀의 중앙부(전설면)를 한데로 모아 경구개와 연구개 사이 부분 가까이로 올려서 내는 [r̥]을 중앙음-'r'(central-r) 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요령으로 내는 두 음은 귀로 들어서 별로 차이가 없으며 미국영어에서는 이 두가



자 'r'이 다 쓰인다.

2) 음성적 변이음

① 강세가 있건 없건 어두(rich, write, return)와 모음사이(sorry, hurry)에서는 [r]로 실현된다.

② 무성자음 /p,k,f,θ,tʃ/뒤(pray, cream, free, thrust, shrine)에서는 부분적으로 무성화가 일어나 [ɹ]로 실현된다.

③ /d/뒤(dry, draw, drop)에서는 마찰음 [ɹ]로 실현된다.

④ /t/뒤(tree, try, trip)에서는 마찰음 'r'이 부분적으로 무성화하여 [ɹ]로 실현된다.

한편, 발음은 원래 비성절음인데, /r/은 /y,w/와는 달리 성절음이 되기도 한다. 성절음- 'r'(syllabic-r)은 음성학적으로 [r]로 표기한다 (father[faðr], bird[bɜrd]). 그러나 음운론적으로 Kenyon(1961)은 이 음을 /ə/ 또는 /ɚ/로 표기하여 일종의 모음으로 해석하였고 (/faðə/, /bɜd/), Trager and Smith(1957)는 /ər/로 표기하여 '모음 + 발음'으로 해석하였다(/faðər/, /bɜrd/). 따라서 음성학적 견지에서는 /r/을 발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기술이 될 수 있겠지만, 음운론적 견지에서는 이 말이 영어에 나타나는 음형을 기술하는데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3.1.2. Offglides

세계의 언어에서 모든 모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이루든지 또는 어떤 음절의 성절음이 된다. 즉, 모든 모음은 적어도 하나의 음절을 구성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중모음(diphthongs)은 두 모음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두 음절이 아닌 한 음절을 이룬다. 따라서 이중모음의 경우는 연결된 두 모음중에서 어느 한 모음이 성절음이 될 자격을 잃고 다른 모음(즉, 성절음)에 대하여 비성절음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음성학적으로 이중모음에서 성절음은 명확하고 크게 발음하지만, 비성절음은 성절음보다 공명도(sonority)가 낮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 짧게 흐려서 발음해야 한다. 음운론적으로 이중모음에서 비성절음이 되는 모음을 발음이라 하고, 그것이 성절음 앞에 오면 onglides, 뒤에 오면

offglides라 부른다. 이와 같이 성절음뒤에 offglides가 오는 이중모음([ay], [aw], [ɔy] 등)을 하강 이중모음(falling diphthongs)이라고 하고, 성절음앞에 onglides가 오는 이중모음을 상승 이중모음(rising diphthongs)이라 칭한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영어에서는 ‘모음+활음’의 연결인 하강 이중모음만을 진정한 이중모음으로 취급하고, 상승 이중모음은 ‘활음+모음’의 연결로만 보고 일반적으로 이중모음으로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승 이중모음은 앞에서 onglides를 논할 때 이미 언급한 셈이 되므로, 여기서는 종래의 진정한 이중모음(즉, 하강 이중모음)의 두번째 요소로 쓰인 offglides를 다룬다.

한편 영어의 이중모음은 그 방향에 따라 전향 이중모음(fronting diphthongs : /ay, ɔy, e(y)/), 후향 이중모음(retracting diphthongs : /aw, o(w)/), 중향 이중모음(centering diphthongs : /ɪr, ɛr, ur, ɔr, ar/)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다음에 이들을 순서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3.1.2.1. Fronting glide /y/

이 음은 다른 모음의 조음위치로부터 고·전설모음 [i]의 조음위치로 향하는 도중에 만들어지는 음으로 전향 이중모음의 두번째 요소로 쓰인다.

1) /ay/ : 이 이중모음은 [a]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여 [i]의 조음위치를 향해 가다가 혀가 [i]까지 완전히 이르지 않고 중간에 사라지는 음이다. [a]는 크게 [y]는 작고 짧게 발음한다.

예 : ice, high, dye, tie, height, eye, buy, my, choir

2) /ɔy/ : 이 이중모음은 [ɔ]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지만 보통 완전한 [i]에 이르지 않는다. [ɔ]는 크고 명료하게 발음하고 [y]는 약하고 짧게 발음한다.

예 : oil, voice, boy, buoy, coign, avoid, enjoy

3) /e(y)/ : 이 음은 특히 영국영어에서 강세를 받을 때나 어말에 왔을 때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이때 [e]는 크게 발음하고 [y]는 완전한 [i]음까지 이르지 않게 끝을 흐려서 발음한다. 그러나 강세를 받지 않는 약음절(chaotic, vacation)에서는 다만 단모음 [e]로 발음한다. 미국영어에서는 [e]만 정확하고 크게 발음하면

충분하지 그 다음 부분은 중요치 않다.

예 : same, they, gauge, wait, gay, straight, veil, great, ancient

### 3.1.2.2. Retracting glide /w/

이 음은 다른 모음의 조음취치로부터 고·후설모음 [u]의 조음 위치로 향하는 도중에 만들어지는 음으로 후향 이중모음의 두번째 요소로 쓰인다. 이 음의 조음시 입술은 약간 원순화된다.

1) /aw/ : 이 이중모음은 [a]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여 혀가 완전한 [u]의 조음위치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춘다. 이때 입술이 약간 원순화된다. [a]는 크게 명확하게 발음하고 [w]는 작고 짧게 발음한다.

예 : pound, about, thou, bow, town, plough, drough,

2) /o(w)/ : 이 음은 미국영어보다 영국영어에서 더 분명히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이때 [o]만 명확하게 발음하고 [w]는 완전한 [u]까지 도달하지 않게 끝을 흐려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음도 약음절(obey, window)에 왔을 때는 이중모음 대신 단모음 [o]로 발음한다. 그리고 이 음이 /r/앞(four, oral)에 왔을 때도 이중모음 대신 단모음 [o]로 발음한다.

예 : go, hope, oak, throw, toe, soul, sew, though, chauffeur

### 3.1.2.3. Centering glide /r/

이 음은 다른 모음의 조음위치로부터 중간·중설모음 [ə]의 조음위치로 향하는 도중에 만들어지는 음으로 중향 이중모음의 두번째 요소로 쓰인다. 이 음의 조음시 혀는 뒤로 약간 당기며 혀끝은 약간 꼬부려 올린다.

1) /Ir/ : 이 음은 [I]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여 [ə] 근처에 이르는 이중모음으로, [I]만 크고 명확하게 발음하고 나머지는 약하게 경과음으로 발음한다. 영국영어에서는 [Iə]로 발음된다.

예 : ear, tear, beer, here, pier, rear, serious

2) /εr/ : 이 음은 혀의 위치가 [ε]에서 [ə]로 옮겨가며, [ε]는 크게 발음하고 나머지는 작게 경과음으로 발음한다. 영국영어에서는 [εə]로 발음한다.

예 : air, hair, rare, care, wear, there, heir, scarce

38 나기연

3) /Ur/ : 이 음은 [U]에서 [ə]로 향하는데 완전히 [ə]까지 이르지 않는다. [U]만 강하게 발음하고 나머지는 경과음으로 약하고 짧게 흐려서 발음한다. 영국영어에서는 [Uə]로 발음한다.

예 : poor, your, sure, cure, endure, Europe, doer

4) /ɔr/ : 이 음은 [ɔ]에서 [ə]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음으로, [ɔ]는 크고 명확하게 발음하고 나머지는 경과음으로 약하고 짧게 발음한다. 영국영어에서는 [ɔə]로 발음한다.

예 : for, pork, store, boar, roar, outdoor, four,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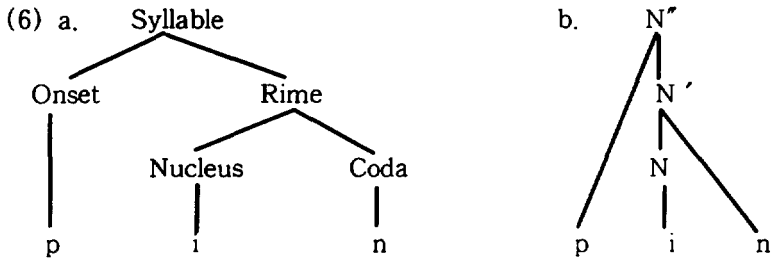
5) /ar/ : 이 음은 [a]에서 [ə]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이중모음으로 [a]는 크고 명료하게 나머지는 약하게 경과음으로 발음한다. 영국영어에서는 [aə]로 발음한다.

예 : car, farm, argue, heart, memoir, sorry, o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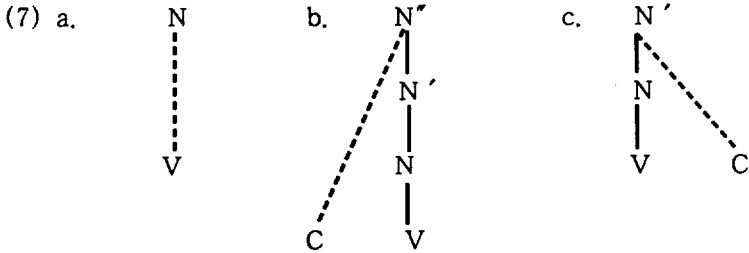
한편 영어에서 이중모음 뒤에 또 활음으로서 /r/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것을 삼중모음(triphthongs)이라고 부른다. 이 음은 음성학적으로 [eyr, owr, ayr, awr, ɔyr](영국영어에서는 [eyə, owə, ayə, awə, ɔyə])로 발음되는 것으로, 하나의 모음(즉, 성절음)뒤에 두개의 활음(즉, 비성절음)이 와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한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는 이 삼중모음을 ‘이중모음 + /r/’, 즉 두 음절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영어의 삼중모음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3.2. 활음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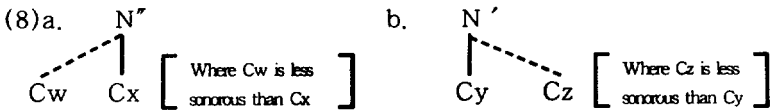
음절구조 속에서의 활음의 표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세계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음절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Kenstowicz 1994 : 253).



또한 보편적인 음절형성규칙(syllable-building rules)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7a)는 모든 모음([-cons])을 음절핵에 할당하는 nuclear placement rule이고, (7b)는 모음앞 자음([+cons])을 onset위치에 할당하는 onset rule이고, (7c)는 모음뒤 자음을 coda에 할당하는 coda rule이다. 이 세 규칙들은 주어진 순서대로 적용된다. 한편 Steriade(1982)는 여기에다 다음과 같은 음절형성규칙을 추가시키고 있다.



(8a)는 onset augmentation rule이라 불리우고, (8b)는 coda augmentation rule이라 지칭된다. (7)과 (8)에서 보인 음절형성규칙들은 (7a), (7b), (8a), (7c), (8b)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리고 이들 규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절들은 핵음절(core syllables)이라고 불리운다.

한편 Hyman(1985)과 Levin(1985)에서 지적되듯이 Clements and Keyser(1983)의 CV음운론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그중 가장 분명한 문제점은 발음의 표시에 대한 비결정성(indeterminancy)에 있다. CV음운론의 틀에서는 모든 [+syll]분절음들은 V자리에, [-syll]분절음들은 C자리에 연결된다. 따라서 만

## 40 나기연

약 활음이 onset에 속하면 C자리에 연결되고, 이중모음의 일부이면 V자리에 연결된다. 이처럼 활음의 C나 V자리로의 연결은 상황(context)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모음의 활음형성 과정에서는 V자리를 C자리로 바꾸어야 하는 반면에, 활음의 모음화 과정에서는 C자리를 V자리로 바꾸어야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CV음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Levin(1985)의 X층이론을 채택하겠다.<sup>5</sup> 한편 활음의 자질표시에 대해서는 Archangeli(1984)의 최소명기(underspecification)의 개념을 받아들여 Hyman(1985)에서 제시된 영(zero) 자질명기를 사용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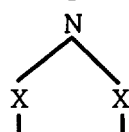
앞의 제2장에서 논의했듯이 영어의 활음은 음절구조 속에서의 그 기능에 따라 onglides와 offglides로 명확히 구분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 두 부류의 활음에 대한 표시도 서로 달라야 한다. 즉, 전통적으로 자음으로 처리되었던 영어의 onglides는 onset(N<sup>o</sup>)에 할당되고, 전통적으로 이중모음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영어의 offglides는 음절핵(N)에 할당되어 각각 기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9)a. onglides



[o cons] (→ [+cons] <음성표시에서>)

b. offglides



[-cons][o cons] (→ [-cons] <음성표시에서>)

본고에서는 Hyman(1985)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질 [syll] 대신에 [cons]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Levin(1985)이 언급하듯이 [syll] 자질은 핵마디(N)와 관련된 잉여성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제 (9a)에서 보듯이, 영어의 onglides는 onset마디(N<sup>o</sup>)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어떤 [-cons]분절음도 onset 마디에 의해 지배될 수 없기 때문에, 기저표시에서 onset마디 안의 [o cons]분절음(즉, onglides)은 나중에 잉여규칙(redundancy rules)에 의해 음성표시에서는 [+cons]분절음으로 기능한다. 반면에 (9b)에서 보듯이, 영어의 offglides는 핵마디(N)에 의해 지배된다. 그런데 어떤 [+cons]분절음도 핵마디에 의해 지배될 수 없고 또한 핵마디에 의해 지배되는 head는 오직 하나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 핵마

다가 이미 하나의 head vowel(즉, [-cons])을 지배하고 있으면 기저 표시에서 핵마다 안의 [o cons]분절음(즉, offglides)은 나중에 음성 표시에서는 잉여규칙에 의해 [-cons]분절음으로 기능한다.

**3.3. 분절음 배열계약**

**3.3.1. Onglides에 대한 제약**

먼저 영어에서 단 하나의 자음만이 onset에 오는 CV-구조에서는 영어의 onglides인 /y,w,r/이 모두 다 이 onset 위치에 올 수 있다.

다음에 영어에서 두개의 자음이 연속해서 onset에 오는 C1C2V-구조에서는 영어의 onglides는 C1에는 올 수 없고 C2의 위치에만 올 수 있다. 따라서 영어의 onset에 올 수 있는 두 자음의 결합 중에서 발음이 포함된 자음군만을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10)과 같다. 여기서 '+'는 세로와 가로에 있는 두 자음의 결합이 적형임을 나타내는 반면에, '-'는 그 반대를 가리킨다.

(10)

c1 \ c2	(y)	w	r	examples
p	(+)	-	+	pupil, pray
t	(+)	+	+	tube, twin, tray
k	(+)	+	+	cute, quick, crow
b	(+)	-	+	bureau, bread
d	(+)	+	+	due, dwell, drive
g	(+)	+	+	gules, gwine, grow
f	(+)	-	+	few, free
θ	(+)	+	+	thews, thwart, three
s	(+)	+	-	sue, sway
ʃ	-	-	+	shred
(m)	(+)	-	-	mute
(n)	(+)	-	-	new
(l)	(+)	-	-	lute
(v)	(+)	-	-	view
(h)	(+)	-	-	huge

## 42 나기연

(10)의 도표에서 주목할 것은 활음 /y/를 포함하는 음절초 자음군이 괄호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저형에서 onset에는 /y/를 포함하는 어떠한 자음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Vergnaud and Halle(1978:19)는 활음 /y/는 항상 긴장모음 /u/앞에 나타나며, 특수한 활음전치(glide preposing) 규칙의 적용을 받아 표면형에 나오는 것으로 기저형에는 /y/와 결합되는 어떠한 자음군도 없다고 기술한다.<sup>6</sup> 이처럼 /y/는 'Tokyo'와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u/이외의 다른 모음앞 자음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활음 [y]도 표면형에서는 자음군의 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뒤따르는 모음이 [u]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성적 연결체인 [yu]는 여러가지 면에서 '활음+모음'의 연결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특종의 이중모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0)의 도표에 제시되는 /m,n,l,v,h/등은 활음 /y/와의 결합이 없다면 활음이 포함된 영어의 음절초 자음군에 나타나지 않아도 무방한 음들이다. 즉, 이들 음들과 활음 /y/와의 결합은 극히 제한된 단어에서만 나타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결합되는 것을 영어의 가능한 자음군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y/를 포함하는 음절초 자음군에 대한 입장을 O'Connor and Trim (1953:117)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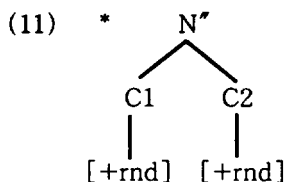
It will be seen, however, that combinations of the types /Cy/ and /CCy/ have a particularly restricted distribution and can not therefore be regarded as compound consonant units in the same way.

그러면 이제 두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영어의 음절초 자음군(C1C2) 중에서 활음이 포함된 자음군에 대한 제약을 검토해 보자. Fudge (1969:266)는 분절음 배열제약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법에는 일련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결합 제약(collocational restrictions)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의 결합 제약은 너무 지나치게 허용되는 음절구조나 또는 과도하게 생성되는 출력에 대한 일종의 filter로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



첫째, 영어의 모든 onglides는 C2의 위치에만 올 수 있고 C1의 위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음절형성규칙중 하나인 (8a)의 조건을 어기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영어의 활음은 onset에 올 수 있는 다른 자음들(즉, /p,t,k,b,d,g,f,θ,s,ʃ,(m,n,l,v,h)/)보다 공명도가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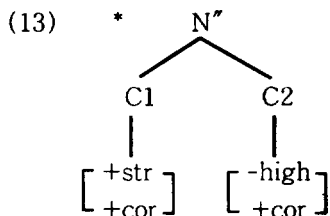
둘째, 활음 /w/는 순음(labials) 다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C1 위치에 /p,b,f,v/가 오면 C2 위치에는 /w/가 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pw, \*bw,\*fw,\*vw/ 등이 onset에 나타나지 못한다<sup>8</sup>. 이 제약을 나타내면 다음의 (11)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의 (12)에서 보이는 McCarthy (1986:208)의 필수굴곡원리(OCP)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12) Obligatory Contour Principle (OC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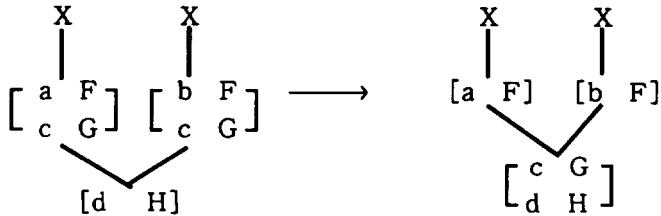
At the melodic level, adjacent identical elements are prohibited.

셋째, 영어의 onset에는 /sr/의 연결체도 발견되지 않는다.<sup>9</sup> 이를 부정제약(negative condition)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13)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의 (14)에서 보이는 Steriade (1992:82)의 공유자질규약(SFC)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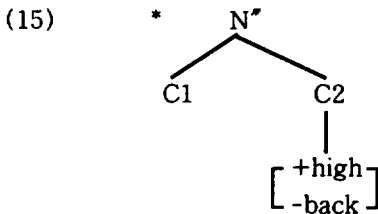


44 나기연

(14) Shared Feature Convention (SFC) :



넷째, 앞에서 논의했듯이 영어에는 기저형에서 C2위치에 /y/가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의 (15)와 같다. 물론 이 제약은 자료의 분석방법 및 방언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y/가 onset의 둘째 구성요소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onset에 세개의 자음이 연속되는 C1C2C3V-구조를 살펴 보자. C1의 위치에는 /s/만이 올 수 있고, C2에는 /p,t,k/가 오며, onglides는 C3의 위치에만 올 수 있다. 이들 세자음군의 가능한 결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6)

c1c2 \ c3	y	w	r	examples
sp	+	-	+	spew, spray
st	+	-	+	stew, street
sk	+	+	+	skew, square, screen

이 결합에서 주목할 것은 새자음군이 가능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자음군이 먼저 가능한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st/와 /tr/가 이미 영어에 존재하는 가능한 두자음군이기 때문에 새자음군 /str/의 연결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영어의 음절초 새자음군 중에서 onglides가 포함된 것만을 검토해 보니, /spw/와 /stw/만이 영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spw/가 영어에서 용인가능한 연결체가 되지 못하는 것은 /sp/는 가능하나, /pw/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미 앞의 (11)에 의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stw/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영어에는 /st/와 /tw/가 음절초 자음군에 나타나므로 /stw/도 허용가능한 자음군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영어에는 /stw/로 시작되는 단어가 없다. 따라서 /stw/는 영어의 용인가능한 음절초 자음군의 예외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형태상으로는 적형이지만 아직 영어의 단어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음운론에서는 Hyman(1975:20)이 언급하는 우연한 공백(accidental gap)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술한 /spw/는 형태도 맞지 않고 영어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공백(systematic gap)이라 말할 수 있다.

### 3.3.2. Offglides에 대한 계약

영어의 음절구성에 있어 음절핵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onset이나 coda는 임의적인 요소다. 또한 영어의 음절핵은 모음이나 '모음+offglide'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모음은 필수적 요소이나 offglides는 임의적 요소가 된다. 한편 영어의 단모음과 offglides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표기방법이나 숫자면에서 서로 다르며, 분석방법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어의 가능한 음절핵은 영어의 모음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와 그 뒤에 오는 offglides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Fudge(1969)는 영어의 음절핵에 오는 모음으로 /i,e,a,u,o,ə/를 들고, 여기에 offglides인 /y/나 /w/를 첨가시켜 이중모음을 만들므로써 음절핵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Selkirk(1982)는 음절핵의 두번째 위치에 /y/나 /w/ 이외에 /r/이 오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

## 46 나기연

이제 영어의 음절핵이 ‘모음+offglide’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른다. 즉, /y/는 /i,e,a,ɔ/뒤에서만 올 수 있으며, /w/는 /a,u,o/뒤에서만 올 수 있다는 긍정제약(positive condition)을 정립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다시 Selkirk(1982)의 방식대로 기저형의 제약으로 나타낸다면, 이중모음화된 긴장모음 /iy/와 /ey/의 경우는 그 활음이 규칙으로 유도된다고 보아 ‘/a,ɔ/만이 /y/앞에 올 수 있는 모음’이 되고, 역시 이중모음화된 /uw/와 /ow/도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어 ‘/a/만이 /w/앞에 올 수 있는 모음’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Chomsky and Halle(1968:183)도 영어의 이중모음화(diphthongization) 규칙에 대해서 기저형에서 어떤 모음이 긴장모음이면 그 뒤에 [back]의 자질가가 일치하는 활음을 삽입시키는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

## 4. 한국어의 활음

### 4.1. 활음의 종류

한국어는 offglides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활음들은 모두 모음 앞에오는 onglides이다. 본고에서는 김차균(1985)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국어에 나타나는 활음들의 종류와 그 변별적 자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ɸ/의 변별자질들을 괄호 속에 넣은 것은 손향숙(1987)의 최소명기이론을 받아들여 이것들이 기저표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약한 자질들임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17)

자질 \ 음운	y	w	[ɥ]	ɸ	h
high	+	+	+	(+)	-
back	-	+	-	(+)	+
round	-	+	+	(-)	-
aspirated	-	-	-	(-)	+

먼저 한국어의 활음인 /y/와 /w/는 전통적으로 반모음으로 처리되던 것으로, 그들의 조음음성학적 특징들은 앞의 3.1.1에서 논의한 영어의 onglides인 /y/와 /w/의 조음음성학적 특징들과 비슷하다. 즉, 전자는 혀가 [i]의 조음위치에서 출발하여 다른 모음의 조음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활음이고, 후자는 혀나 입술이 [u]의 조음위치에서 시작하여 다른 모음의 조음위치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조음되는 활음이다. 이 두 활음을 한국어의 기저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 두 활음과 단모음과의 결합에 의하여 이중모음의 연결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병건(1976:15)도 한국어에서는 기저음운으로서의 이중모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활음+단모음’의 연결에 의하여 이중모음을 유도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활음 /ɥ/의 설정은 김차균(1985:1-7)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분포와 설정근거에 대해서 말해 두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의 단모음(18)과 이중모음(19)을 나타내는 다음의 경우를 보자.

- (18) a. /a, ə, o, u, i, i, ε, e, ɔ̃, ʊ/  
 b. /ɥa, ɥə, ɥo, ɥu, ɥi, ɥi, ɥε, ɥe, ɥɔ̃, ɥʊ/

- (19) /wa, wo, wε, we, ya, yo, yo, yu, yε, ye, etc./

김차균(1985:1-2)은 한국어에서 ‘아, 어, 오, 우, 으, 이, 애, 에, 외, 위’라는 10개의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에서 그 초성에 나타나는 영(zero) 음소 ‘o’ (이음)을 음성학적 실질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활음성(즉, [-cons, -voc])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영 음소 /ɥ/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단모음을 (18a)로 적지 않고, (18b)로 적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음절초에 자음군(CC)이 오는 음절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와, 워, 왜, 웨, 야, 여, 요, 유, 애, 예’ 따위의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19)로 적고 있다. 그리고 일부 방언에서 ‘의’를 [iy]로 발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어에서 음절말에 활음이 음성표면에 나타나는 일이 없으므로, /ɥ/은 초성의 위치에만 쓰이는 것으로 보고 종성의 위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8 나기연

이제 활음요소 / $\sigma$ /을 인정해야 할 음성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0) a. /san # kol/ [sank'ol] (산골)
- b. /sa:n # pha/ [sa:npha] (산파)
- c. /saam/ [saam] (사암 <砂岩>)

(20a)에서 [a]는 하나의 단모음, (20b)의 [a:]는 하나의 장모음, (20c)의 [aa]는 두개의 단모음의 병치이다. 이 세가지 경우는 한국어 음운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성표시의 차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단모음[a]와 장모음[a:]는 모음길이의 차이로 구별이 가능하다. 즉, 전자는 후자보다 모음의 길이가 짧다. 그러나 장모음[a:]와 두 단모음의 병치인 [aa]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들은 발음에서 공명도의 골짜기가 있고 없음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전자는 공명도가 〰 형으로 나타나지만, 후자는 〰의 모양으로 굴곡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두개의 모음 사이에 하나의 자음 또는 활음이 있으면, 그 자음이나 활음은 필연적으로 골짜기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aa]의 발음에서 공명도의 골짜기를 이루는 부분에 영음소 [ $\sigma$ ]이 나타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20c)의 음성형은 [sa $\sigma$ am]으로 적는다.

또한 한국어의 기저목록에는 없으나 도출과정에서 나타나는 활음 [q]에 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q]의 도출은 다음의 임의적인 규칙에 의한다.

- (21)  $\sigma \ddot{u} \longrightarrow qi$  (optional)
- 1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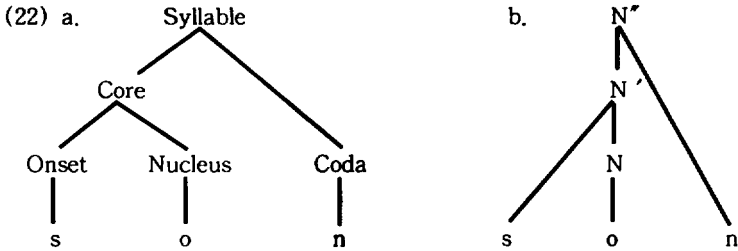
규칙(21)에 의하면, / $\sigma \ddot{u}$ / (위), /k $\ddot{u}$ / (귀), /c $\ddot{u}$ / (취) 따위가 임의적으로 [qi], [kqi], [kqi] 따위로 발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규칙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방언에서 대부분의 토박이들에게는 적용빈도가 매우 높은 규칙이다.

마지막으로 /h/는 한국어에서 활음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자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승재(1980), 최명옥(1982), 소강춘

(1983,1989) 등에서는 /h/를 발음으로 인정한 반면에, 허용(1978)에서는 /h/가 취하는 다른 자음과의 결합이나 음운현상을 고려하여 자음으로 분류되었다.<sup>10</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h/를 발음으로 분류한다. 이는 한국어에는 하강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고, [h]가 표면음성형에서 음절말음으로 실현되지도 못하고, 후술할 ‘유기음화와 h-탈락’(31d)이라는 축약현상에 대해서도 기술상의 경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편 /h/의 변이음으로는 [h,ɦ,ϕ,ç,x]등이 실현되고 있다. [h]는 어두에서 실현되고, [ɦ]는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된다. [ϕ]는 /u/를 후행시키는 경우(‘홀륭하다’[ϕulkuŋɦada])에 실현되고, [ç]는 /i/를 후행시키는 경우(‘희한하다’[çihanɦada])에 실현된다. [x]는 유기성이 강하게 실현되는 경우(‘흙’[xik])에 실현되는 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h/와 음성상의 유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경에서도 상호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h/의 변이음들로 처리된다.

4.2. 발음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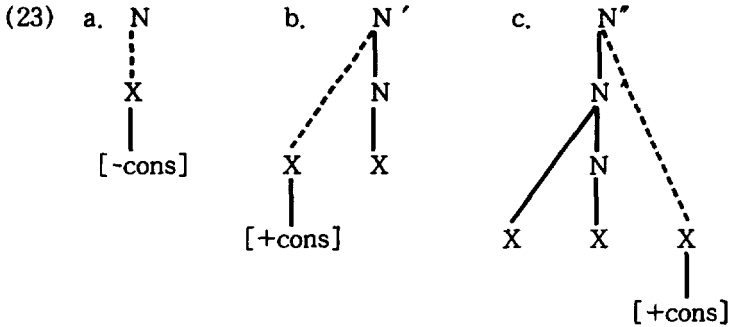
음절구조 속에서의 발음의 표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절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나기연 1993:177).



영어의 음절구조에서는 nucleus와 coda가 하나의 단위인 rime(각운)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어의 음절구조에서는 onset(초성)과 nucleus(중성)가 core(핵부)라는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다. 즉, 영어의 음절구조는 우분지적(right-branching) 구조이지만,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좌분지적(left-branching) 구조이다.

50 나기연

또한 한국어의 보편적인 음절화원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나기연 1990:101).



(23a)는 음절의 head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cons]분절음을 N 마디에 연결시키는 N-Projection Principle이고, (23b)는 초성을 만들기 위하여 모음앞 [+cons]분절음을 좌편에서 N'마디에 연결시키는 N'-Branching Principle이고, (23c)는 종성을 만들기 위하여 모음뒤 [+cons]분절음을 우편에서 N''마디에 연결시키는 N''-Branching Principle이다. 이들 음절화원리들은 주어진 순서대로 적용되며, 또한 Clements and Keyser(1983)가 제시한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규약에 따라 모든 음운론적 도출과정을 통해서 순환적으로 적용된다.

이제 한국어의 활음이 음절구조 속에서 초성의 일부냐, 음절핵의 일부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Kim-Renaud(1978)는 활음을 중성(즉, 음절핵)의 일부라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에, 이병건(1982)은 활음을 초성의 일부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김영석(1985)은 한국어에서 활음은 모음으로의 분석과 자음으로의 분석이 둘다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어 음절에 대한 평면적인 음절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차균(1987)과 안상철(1988)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활음은 음운표시의 모든 도출과정에서 언제나 음절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기저표시에서는 음절핵에 속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음성표시에서는 초성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성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활음은 다른 자음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음위치에서 다른 조음위치로의 신속한 움직임에 의해서 조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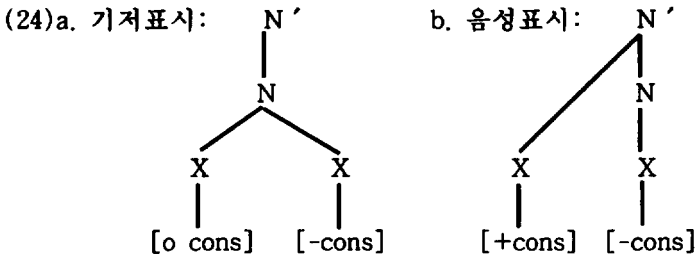
둘째, 언어보편적 현상으로 ‘모음+모음’의 연결을 깨뜨리기 위하여 활음이 흔히 삽입되는데, 이러한 모음충돌 현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삽입되는 분절음은 음절핵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초성으로서 기능한다. 예컨대, 한국어에는 두가지 형태의 호격접미사 ‘a’와 ‘ya’가 있는데, 전자는 자음으로 끝나는 사람이름 뒤에서 나타나고, 후자는 모음으로 끝나는 사람이름 뒤에서 나타난다. 이는 바로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초성으로 기능하는 활음인 /y/가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김진우(1968)에 의하면 한국어에는 오직 하나뿐인 offglide가 나타나는 하강 이중모음인 /iy/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음절 내에서는 어떤 자음도 그것을 뒤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표면에서는 어떤 중성자음군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offglide /y/가 음절핵의 일부로서 간주된다면, 우리는 어째서 \*/iy+C/가 동일 음절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sup>11</sup>

넷째, 김차균(1987:51-2)에서 제시된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형식화된 언어놀이(language game)에서도 활음이 자음처럼 초성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자음+모음’의 연결 뒤에 ‘P + 앞선 음절의 동일 모음’을 삽입시키라는 언어놀이에서도 두번째 음절의 되풀이 되는 모음은 앞선 음절의 ‘활음 + 모음’의 연결이 아니라 핵모음(head vowel)만이 되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활음이 음절핵의 일부가 아니라 초성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Hyman(1985)에서 언급하는 바, /C+y/ 또는 /C+w/와 공동조음된 /Cy/ 또는 /Cw/ 사이의 차이점에서 보이는 구조적 관심의 문제에서도 활음이 onset의 일부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음운론적 파생의 출력으로 나온 ‘자음+활음’의 연결은 음성표시에 대한 입력이 되어 언제든지 공동조음된 자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활음이 음절핵의 일부라고 하는 주장은 음성적 근거를 전혀 무시한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자음 + 활음'의 연결은 /CY/나 /Cw/에서처럼 활음이 하나의 공동조음 단위로서 앞선 자음에 통합되기 때문에, 음성표시에서는 두개의 분절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증거들에 근거해서 한국어의 활음은 기저표시에서는 음절핵의 일부로 나타나지만, 음성표시에서는 초성으로 옮겨간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기저표시와 음성표시가 서로 다른 활음에 대한 표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4)에서 보듯이, 활음(즉, [o cons]분절음)은 기저표시에서는 N마디에 의해 지배되지만, 뒤따르는 핵모음(즉, [-cons]분절음)의 존재때문에 음성표시에서는 초성으로 옮겨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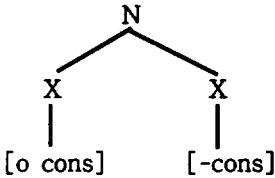
한편 한국어에서 음절핵은 기저표시에서는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위해서 N마디 아래 두개의 X자리와 분절음 단위들을 지배할 수 있지만, 음성표시에서는 오직 하나의 X자리와 분절음 단위만을 허락해야 한다. 따라서 이중모음의 경우는 기저표시에서 N마디 아래 두개의 X자리 밑에 있는 분절음 단위들(즉, [o cons]와 [-cons])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앞서 논의한 OCP(12)나 SFC(14)에 의해 그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없으므로, N마디 아래 첫번째 X자리와 그 밑에 있는 [o cons]분절음(즉, 활음)은 음성표시에서는 N'마디 아래로 옮겨가 [+cons]분절음으로 실현되고, 나머지는 그냥 N마디 아래에 남는다. 반면에, 장모음의 경우는 기저표시에서 N마디 아래 두개의 X자리 밑에 있는 분절음 단위들(즉, [-cons]와 [-cons])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OCP나 SFC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

어, 음성표시에서는 그냥 N마디의 아래에서 하나의 [-cons]분절음으로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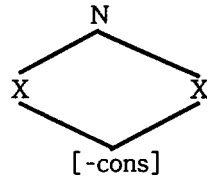
활음의 표시에 대한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 활음소 /ə/을 인정한다면 한국어의 음절핵은 기저표시에서는 다음의 (25)처럼 두 종류로 나누어지지만, 음성표시에서는 (26)처럼 한가지 뿐이다.

(25) 음절핵의 기저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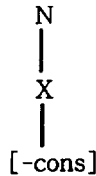
a. 단모음 및 이중모음:



b. 장모음:



(26) 음절핵의 음성표시:



(25b)처럼 기저표시에서의 장모음은 OCP나 SFC에 의해 음성표시에서는 단모음화 된다. 반면에 (25a)처럼 기저표시에서 음절핵의 일부로서 [o cons]로 최소화된 활음은 음성표시에서는 초성위치로 옮겨가, 만약 초성에 다른 자음이 없을 경우에는 활음 자신이 [+cons]분절음으로 실현되면서 그 자체가 초성이 되지만, 초성에 이미 다른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활음은 그 앞선 자음과 축약되어 공동조음된 자음을 형성한다. 따라서 (24)처럼 한국어 활음의 기저표시와 음성표시를 서로 다르게 설정한 것은 후술할 활음축약(31)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다.

#### 4.3. 분절음 배열계약

한국어에서 ‘활음 + 단모음’의 연결에 의해 생성된 이중모음의

54 나기연

형태들 가운데, 비문법적인 형태들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는 제약이 따라야 한다. 먼저 다음을 보자.

(27) 이중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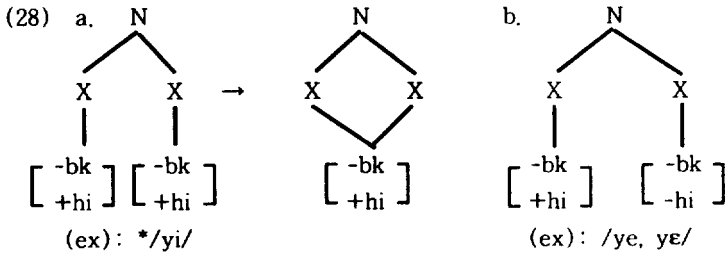
	[-bk, -rnd]	[-bk, +rnd]	[-bk, -rnd]	[+bk, +rnd]
[+hi]	(*yi) wi	(*yü) *wü	(?yi)(*wi)	yu (*wu)
[-hi, -lo]	ye we	(*yö) *wö	yə wə	yo (*wo)
[+lo]	ye we		ya wa	

(27)은 이병건(1976)이 제시한 열개의 단모음 체계를 가정하고, 한국어의 이중모음에 대한 가능한 모든 결합을 밝힌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한국어의 이중모음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약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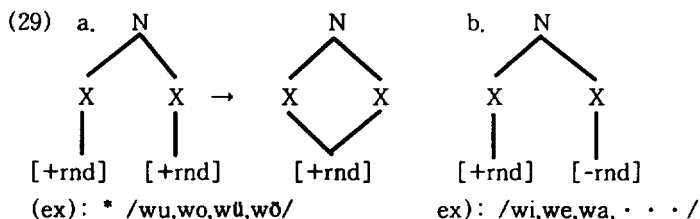
첫째, 단모음 /ü/와 /ö/를 대체하면서 각각 그 변이형인 [wi]와 [we]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yü,\*yö \*wü\*wö/처럼 [-bk, +rnd]인 모음을 포함하는 어떤 이중모음도 한국어에는 없다.

둘째, /i/는 /\*yi,\*wi/처럼 활음이 앞설 수 없다.<sup>12</sup>

셋째, [-bk, +hi]인 활음 /y/는 또다른 [-bk, +hi]인 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을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다음의 (28)에서 처럼 OCP(12)나 SFC(14)에 의해서 설명된다.



넷째, [+ rnd]인 활음 /w/도 세번째와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다음의 (29)에서 처럼 [+ rnd]인 모음을 취할 수 없다.



(28)과 (29)의 두 예에서, (28a)와 (29a)는 OCP나 SFC에 의해 이중모음의 생성이 저지되지만, (28b)와 (29b)는 OCP나 SFC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적형의 이중모음을 만들어 낸다.

## 5. 한국어의 활음과 관련된 음운현상

### 5.1. 활음축약 및 구개음화

여기서의 논의는 한국어에서 오직 ‘자음 + 활음’의 연결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과정의 범위로만 한정된다. 이제 활음축약 현상의 보기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0) a. /kwaŋ/ (광) → [kwaŋ]  
 /myən/ (면) → [myən]  
 /kū/ (귀) → [kʰi]
- b. /kuk+waŋ/ (국왕) → [kugwaŋ]  
 /sək+yən/ (석연) → [səgyən]  
 /kam+əan/ (감안) → [kaman]  
 /sək+hak/ (석학) → [səkʰak]
- c. /kuk+hwa/ (국화) → [kukʰwa]  
 /thak+hyo/ (탁효) → [thakʰyo]  
 /kuk+əü/ (국위) → [kugʰi]

(30)의 자료들을 보면 자음과 활음이 만날 때는 하나로 축약되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0a)는 활음축약이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30b)는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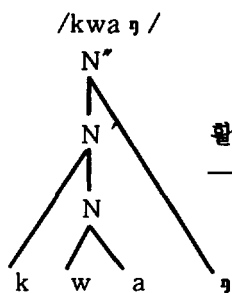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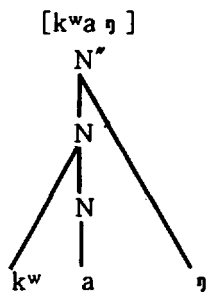
58 나기연

서 ‘광’과 ‘형’의 음절구조를 앞에서 보여준 활음의 기저표시와 음성표시(24)에 관련시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a. 기저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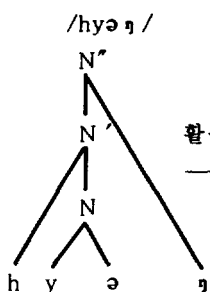


음성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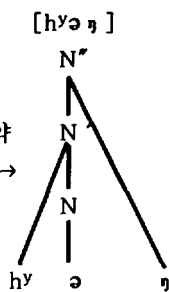


활음축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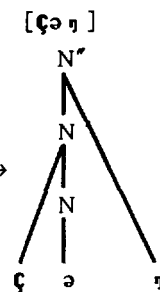
b. 기저표시:



중간표시:



음성표시:



활음축약  
→

구개음화  
→

5.2. 활음형성과 보상적 장모음화

활음형성(glide formation)과 보상적 장음화(compensatory lengthening)에 대해서 이병근(1979)은 다음과 같은 규칙과 예를 제시하고 있다.

$$(35) \begin{matrix} V & + & ə/a & \rightarrow & \begin{bmatrix} y \\ w \end{bmatrix} & [+long] \\ 1 & & 2 & & 1 & 2 \end{matrix}$$



(36) /pi+ə/ → [pyə:] 'empty', /po+a/ → [pwa:] 'to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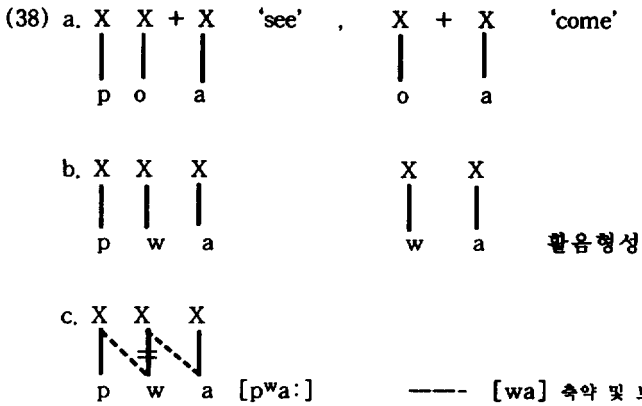
이병건(1976)과 이병근(1979)에 의하면, 활음형성과 동시에 일어나는 보상적 장음화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만이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고 있지, 명사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므로 형태론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한편 우리는 다음의 (37a)에서만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지, (37b)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

(37) a. /ki+ə/ → [kyə:] 'crawl', /cu+ə/ → [cʷə:] 'give'  
 b. /o+a/ → [wa] 'come'

(37b)의 예는 보상적 장음화가 활음형성의 자동적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균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하나는 극소수의 예들이 보상적 장음화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Hyman(1985)에서 인용되고 있는 Luganda어의 경우처럼 보상적 장음화는 선행 자음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자료에서도 Hyman(1985)이 주장하는 이 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한국어에서는 동일 음절 내에서 자음이 활음을 선행할 경우에만 보상적 장음화가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기본입장은 선행 자음의 X골격 자리가 활음이 그 자음과 축약되어 공동조음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따라서 활음이 있던 X자리는 보상적 장음화를 위한 빈 자리로 남겨진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면에 만약 선행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활음은 공동조음을 위한 자리를 찾지 못해 보상적 장음화를 위한 빈 자리를 뒤에 남길 수 없게 된다. 이제 활음형성과 보상적 장음화가 도출되는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음절구조 표시는 생략함)

60 나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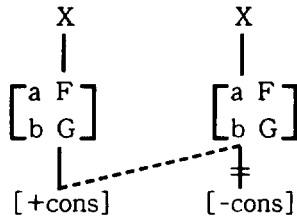


그러나 이병근(1979)이 제시한 예들을 보면, 이러한 본고의 주장에 대해서 두가지 유형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즉, 하나는 다음의 (39a)에서처럼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선행 자음이 없는데도 보상적 장음화가 실현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39b)에서처럼 선행 자음이 있는데도 기대되는 보상적 장음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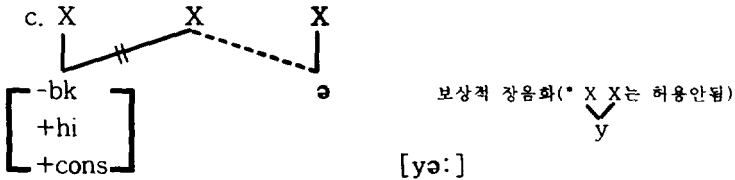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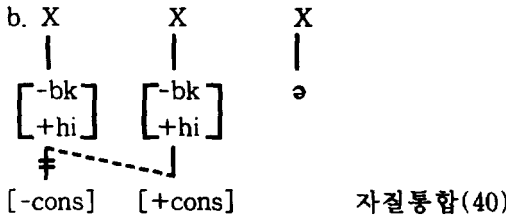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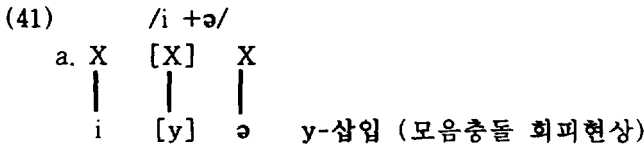
- (39) a. /i+ə/ → [yə:] 'hold something on the head'  
 b. /ci+ə/ (→ [cyə]) → [cə] 'lose'  
 /chi+ə/ (→ [chyə]) → [chə] 'hit'

(39)의 예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두개의 음성적으로 비슷한 분절음들 사이에 적용되는 자질통합(Feature Merg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규칙으로 나타낸다.

(40) Feature Merge (mirror image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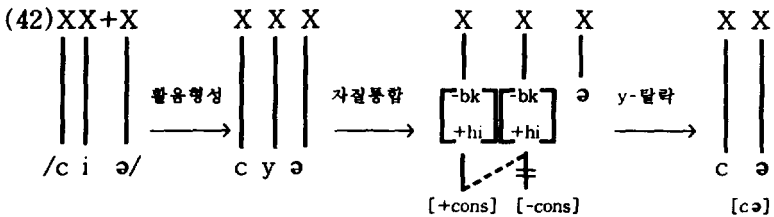
(40)은 앞서 보인 Steriade(1982)의 SFC(14)를 수정한 것으로, 한 분절음 내의 어떤 자질이나 자질결합도 자립분절음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이것은 이웃해 있는 음성적으로 비슷한 두 분절음들이 서로 공통된 자질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한 [-cons]분절음이 갖는 [-cons]자질의 연결을 끊고 다른 [+cons]분절음이 갖는 [+cons]자질에 나머지 공통된 자질들을 연결 시킨다. 이제 (40)을 이용하여 (39)에서 문제된 두 경우를 해결해 보자. 먼저 (39a)의 /i+ə/연쇄체는 그 변이형으로 [iyə]를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는 도출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62 나기연

(41)에서 보듯이, 자질통합이 두 분절음 사이의 음성적 유사성 때문에 /i+y/연쇄체에 적용되고, 그후 분절음 층렬에서 두번째 X 자리의 연결을 끊고 그 뒤의 /ə/를 그 빈 X자리에 연결시킴으로써 보상적 장음화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39b)의 경우에는 초성 자음인 /c, ch/와 중간형태로 나타나는 활음 [y]는 둘다 구개음(즉, [+high, -back])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기서 기대되는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도출 과정을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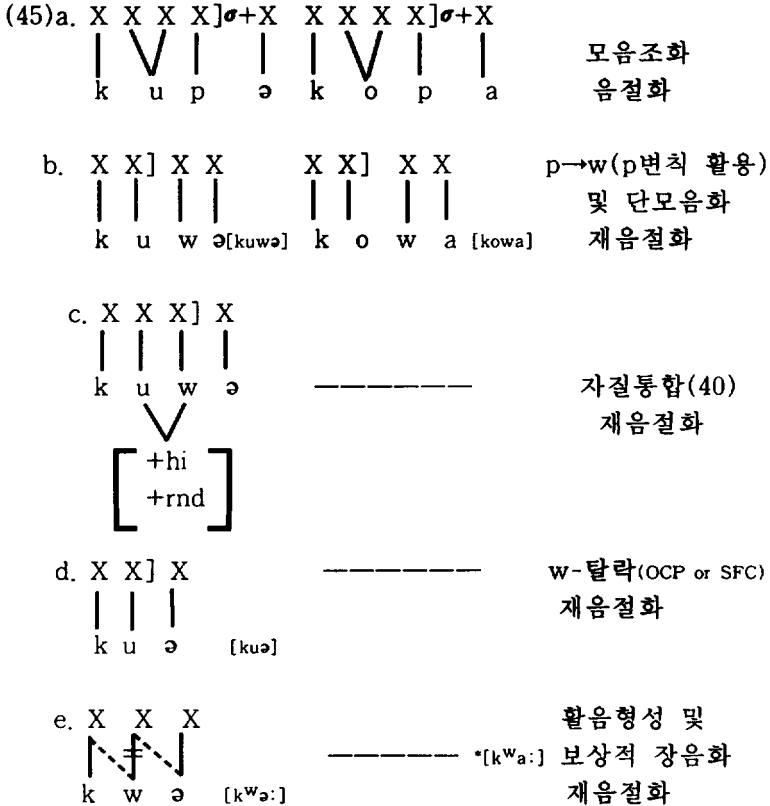
(42)에서 /i/는 활음형성에 의해 중간단계에서 [y]로 되고, 그 다음 [c]와 [y]는 자질통합에 의해 함께 묶이지만, 그들의 공동조음에서 구개자음 [c]가 [y]를 잉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y]는 완전히 탈락된다. 따라서 \*[cyə:]와 같은 음성형은 있을 것 같지 않다. (42)에서 [y]의 탈락은 그것이 구개자음에 뒤따르기 때문에 일어났으므로, 만약 선행 자음이 구개음이 아닌 다음의 (43)에서는 'y-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 (43) /ki+ə/ 'crawl' → [kiə] ~ [kyə:] (but \*[kə] or \*[kə:])  
 /pi+ə/ 'empty' → [piə] ~ [pyə:] (but \*[pə] or \*[pə:])

여기에 설정한 (40)의 규칙은 어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한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변칙' 용언에서의 다음의 경우를 보자.

- (44) a. /ku:p+ə/ 'bake' → [kuwə] ~ [kuə] ~ [kwə:]  
 b. /ko:p+a/ 'pretty' → [kowa] (but \*[kwa:])

(44a)에서는 [kuwə]~[kuə]와 [kʷə:]가 모두 도출되는 반면에, (44b)에서는 [kowa]만이 도출되고 \*[kʷa:]는 도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40)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다.



(45)에서 보듯이, /u/와 /w/는 [+hi, +rnd]라는 공유자질을 가지고 있어 자질통합이 적용되어 [kwə:]가 도출되지만, /o/(즉, [-hi, +rnd])와 /w/(즉, [+hi, +rnd])는 [high]자질에서 차이가 나므로 자질통합이 적용되지 못해 \*[kʷa:]는 도출해 낼 수 없다.

또한 한국어의 변칙용언의 활용과 관련하여, 활음형성 과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h-변칙’ 활용의 흥미있는 한



음절 내에서 자음이 활음을 선행할 경우에만 실현된다고 하는 앞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보다 일반성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 6.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활음에 대한 연구를 영어와 한국어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활음에 대한 개념정립을 통하여 모음앞에 오는 onglides와 모음뒤에 오는 offglides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특히 이들 두 부류는 그들이 나타나는 음절구조상의 위치에 따라 그들의 기능에서 서로 차이가 남을 보였다. 즉, 전자는 onset의 위치에 나타나므로 자음으로 기능하는 반면에, 후자는 nucleus의 위치에 나타나므로 이중모음의 일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제3장에서는 먼저 영어에 나타나는 세가지 종류의 활음들을 onglides와 offglides로 구분하여 각각 그 조음음성학적 특징들과 음성적 변이형들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영어의 음절구조와 음절형성규칙들을 소개하면서, 영어의 onglides와 offglides는 그들의 기능에 따라 음절구조상의 표시도 각각 서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활음형성과 활음의 단모음화와 같은 음운변동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활음의 자질명기에서는 Archangeli(1984)의 최소명기이론을 받아들여 활음을 기저표시에서는 [o cons]로 명기하였고, 또한 골격층열의 표시에서도 Levin(1985)의 X층이론을 채택하여 CV골격대신에 X골격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onglides와 offglides에 대한 분절음 배열제약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먼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다섯가지 종류의 활음들과 그들의 설정근거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절화 원리들을 소개했으며, 또한 한국어의 활음은 오직 onglides뿐이지만 음절구조상의 기저표시와 음성표시는 서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활음이 기저표시에서는 음절핵의 일부로 나타나지만 음성표시에서는 초성으로 옮겨간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이중모음의 생성에서 나타나는 활음과 관련된 분절음 배열제약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한국어의 활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으로 활음축약 및 구개음화 현상 그리고 활음형성과 보상적 장음화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24)에서 한국어 활음의 기저표시와 음성표시를 서로

다르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영어의 활음과 한국어의 활음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활음은 onglides와 offglides로 명확히 구분되므로, onglides는 언제나 자음으로 기능하면서 음절구조상 onset의 위치에 나타나는 반면에, offglides는 ‘앞서는 단모음과 그것’의 결합에 의해 이중모음을 형성하고 그 일부로 기능하면서 음절구조상 언제나 음절핵의 위치에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어의 활음은 언제나 모음앞에 오는 onglides뿐이지만, 영어의 onglides와는 달리 ‘그것과 뒤따르는 단모음’의 결합에 의해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그래서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상승 이중모음뿐이고, 영어의 이중모음은 하강 이중모음 뿐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활음은 기저표시에서는 음절구조상 음절핵의 위치에 나타나서 이중모음의 일부인 것처럼 기능하지만, 음성표시에서는 초성의 위치로 옮겨가 영어의 onglides처럼 자음으로 기능한다고 결론짓겠다.

### 내용주

1. ‘glides’란 용어는 학자에 따라 우리말로 ‘이동음, 전이음, 추이음, 활주음, 과도음’ 등으로 불리워 왔는데, 여기서는 ‘활음’이라는 용어로 통일시켜 사용하겠다.

2. 이중모음의 형성은 언어마다 그 유형이 약간씩 다르다. 영어의 이중모음은 ‘단모음 + 활음’으로 이루어지지만,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활음 + 단모음’으로 이루어진다.

3. Kenstowicz(1994:45)에 의하면, onglides는 상승 이중모음(rising diphthongs)을 만들어 내고, offglides는 하강 이중모음(falling diphthongs)을 만들어 낸다.

4. Lass(1976:ch.6)에 의하면, [h]는 무성 성문마찰음, [ʔ]는 무성 성문폐쇄음으로 분류되며, 둘다 저해음(obstruents)으로서 초후두 조음(supralaryngeal articulation)과 관련된 모든 자질들은 결여되어 있다. 내용주 10 참조.

5. Levin(1985)에 의하면, CV음운론의 CV층은 [syll]자질에 대하여 임의적이므로, 이 CV골격은 음운론적으로 텅빈 시간조절단위인 X골격으로 대체되어야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활음의 처리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6. 또한 Clements and Keyser(1983:42)도 Levin(1981)의 분석을 따라 /y/는 기저형에 존재하지 않고 모음 /u/앞에서 /y/가 삽입되는 규칙을 통



해 표면형에서 [yu]로 된다고 주장한다.

7. 이에 대해 Algeo(1978:212-13)도 자료가 설명되는 방식의 차이와 방언의 차이에 따라 /자음 + y/의 형태를 자음군으로 볼 것인가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하면서, /y/를 포함하는 자음군이 미심쩍다(suspicious)고 밝히고 있다.

8. 이 제약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 /pw/는 'Pueblo'에 나타나고, /bw/는 'Buenos Aires'와 'bwana' 등에서 나타난다고 한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런 현상은 외래어적이거나 고유명사에 국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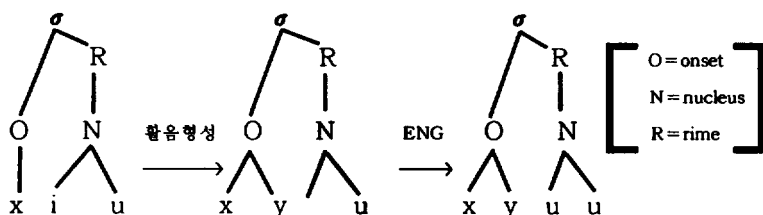
9. 그러나 Vergnaud and Halle(1978:18)은 기저형 /sr/에서 [ʃr]가 유도된다고 하고 있으며, Cairns and Feinstein(1982:203)도 [ʃr]는 어휘표시상(lexically) /sr/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sr/는 영어의 기저표시에서는 존재한다고 간주된다.

10. Chomsky and Halle(1968:303)에서는 /h/가 /ʔ/와 함께 활음으로 분류되어 [+sonorant]인 것으로 되어 있다.

11. 얼핏 보기에는 한국어에서 /hiy-n/ 'white'이 \*/iy+C/에 대한 하나의 예외로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철자법상의 표시이지, 음성형에서는 /iy/는 [i]가 되어야 한다. /hiy-n/ → [hin]

12. 방언에 따라서는 /yə/와 /u/ 대신에 각각 [yi]와 [wi]가 종종 쓰인다. 무주·익산지역: /yəŋkam/ (영감) → [yiŋgam], /puək<sup>h</sup>/ (부엌) → [pwiek]

13. 활음형성 결과로 생긴 보상적 장음화는 Ingria(1980:41)의 공마디 규약(Empty Node Convention: ENG)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 참고문헌

- 김차균 (1985) "음절구조 속에서 활음의 기능", 언어연구 2.  
 ----- (1987)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절핵 안에 일어나는 음운론적 과정", 말 12.

68 나기연

- 나기연 (1990) 음절이론과 음운현상,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1993) "영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 비교연구", 전주  
교대 논문집 제29집.
- 소강춘 (1983) 남원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1989) 전북방언의 공시적 언어분화에 관한 연구, 전  
북대 박사학위논문.
- 양동휘 (1974) 영어음성학, 범한서적.
- 이병건 (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 (1982) "음절이론에 관하여", 현대영어학 연구, 신아  
사.
- 이병근 (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탐출판사.
- 이승재 (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 최명옥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허 옹 (1978) 국어음운론, 정음사.
- Ahn,S.C. (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 (1988) "A revised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3, 333-362.
- Algeo,J. (1978) "What consonant clusters are possible?" Word 9,  
206-224.
- Archangeli, D.(1984) Underspecification in Yawelmani Phonology  
and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 Bronstein,A.J.(1960)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Inc.
- Cairns,C.E. and M.H. Feinstein.(1982) "Markedness and the  
theory of the syllable" LI 13, 193-255.
- Chomsky,N. and M.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and Row.
- Clements, G.N. and S.J.Keyser.(1983) CV Phonology, Cambridge:  
MIT Press.
- Fudge,E.C. (1969) "Syllables" Journal of Linguistics 5, 253-286.
- Gimson,A.C. (1989)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Edward Arnold.
- Hyman,L. (1985) A Theory of Phonological Weight, Dordrecht-  
Holland : Foris Publications.
- Ingria,R. (1980) "Compensatory lengthening as a metrical  
phenomenon" LI 11, 465-495.
- Jones,D. (196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Heffer & Sons Ltd.
- Kenstowicz, M. (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Blackwell.
- Kenyon, J.S. (1961) *American Pronunciation*, Ann Arbor: George  
Wahr Publishing Co.
- Kim, C.W.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516-527.
- Kim, Y.S. (1985) *Aspects of Korean Morph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Texas.
- Kim-Renaud, Y.K. (1978) "The Syllable in Korean Phonology" in  
Kim, C.W.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SC: Hornbeam Press.
- Ladefoged, P. (1982)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ass, R. (1976) *English phonology and phonolog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Levin, J. (1985) *A Metrical Theory of Syllabicity*, Doctoral  
Dissertation, MIT.
- Levin, L.S. (1981) *A look at English vowels*, Cambridge: MIT  
Press.
- McCarthy, J.J. (1986) "OCP effects: gemination and  
antigemination" *LI* 17, 207-263.
- Mohanan, K.P. (1982) *Lexic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 D'Connor, J.D. and L.M. Trim. (1953) "Vowel, consonant and  
syllable: A phonological definition" *Word* 9, 102-122.
- Prator, C.H. and B.W. Robinett (1985)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chane, A.S. (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Schein, B. and D. Steriade. (1985) "On geminates" *LI* 17, 691-744.
- Selkirk, E.O. (1982) "The syllable" in Hulst van der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I), Dordrecht: Foris.
- Sloat, C. et al. (1978) *Introduction to Phonology*, N.J.: Prentice-  
Hall.
- Sommerstein, A.H. (1977) *Modern Phonology*, Baltimore, ML:  
University Park Press.

## 70 나기연

- Steriade, D. (1982) Greek Prosodies and the Nature of Syllabif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Trager, G.L. and H.L. Smith. (1957)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 Vergnaud, J.R. and M. Halle. (1978) "Metrical structure in phonology"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1986) Phonology and Morphology 3, Seoul: Hanshin.

나기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128

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